



제목	Religious Appropriation of National Symbols in Iran: Searching for Cyrus the Grea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5. 11. 1.
저자	Menahem Merhav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933-948
ISBN 또는 ISSN	1475-4819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키루스 대제의 성격에 대한 지난 40년 동안 이란에서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키루스 대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이란 정체성의 종교적 구성요소와 민족적 구성요소 사이의 균형에 대한 투쟁을 보여주는 프리즘으로 작동한다. 키루스에 대한 '바른' 기억 논쟁은 단순히 역사적인 혹은 종교적인 논쟁을 넘어서,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란 사회의 정치적 열망의 근원과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키루스에 대한 바른 기억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을 기준으로 혁명 이전인 팔레비 왕조 때의 상황과 혁명 이후 1990년 대 중반 이후의 상황을 소개한다.

혁명 이전인 팔레비 왕조 시기에는 키루스를 이란 최초 국가의 창시자로 묘사하는 책들의 출판, 꾸란과 키루스 대제를 연관시키는 작업, 페르세폴리스에서의 이란 왕조 2500주년 기념식 거행 등을 통해 키루스 대제가 국가적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키루스 재현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임시기에 개최된 “Cradle of Islamic-Iranian civilization”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는 꾸란과 키루스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활성화시켰으며, 무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키루스와 혁명을 연관시키는 논문들이 등장했으며,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키루스 실린더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페르세폴리스에서 노루즈 의식이 거행되었다.